

대구·경북 건설수주 증가, 취업자 수 감소

3분기 대구·경북 경제동향
백화점 등 영항 소매판매 1.3% ↓
건축·토목 늘어 건설수주 4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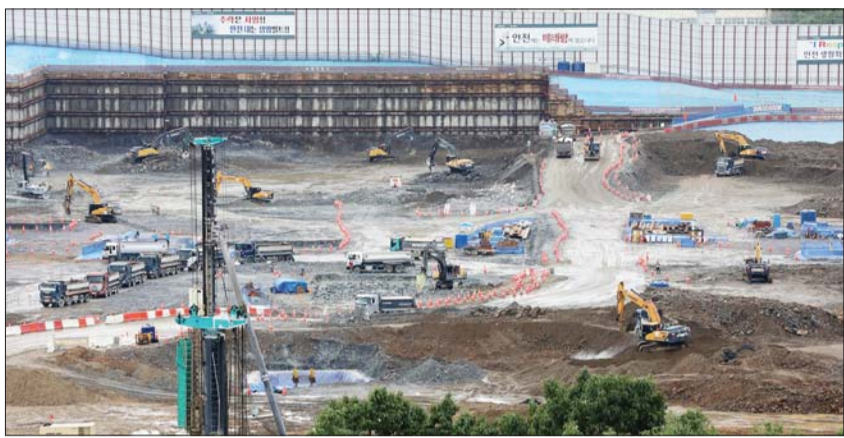
올해 3분기 대구·경북지역의 건설수주, 소비자물가, 실업자 수는 증가세로 전환됐고 광공업생산, 수출·수입, 취업자 수는 감소세가 지속됐다.

17일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3분기 대구·경북 경제동향'에 따르면 대구는 전년 동분기대비 건설수주는 증가로 전환, 소비자물가는 증가세가 지속됐다.

서비스업 생산은 감소로 전환, 광공업생산, 소매판매, 수출·수입, 취업자 수, 실업자 수는 감소세가 지속, 인구는 순유출이 계속됐다.

광공업생산은 금속가공제품, 자동차·트레일러 등에서 줄어 10.4%, 서비스업생산도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운수·창고업 등에서 줄어 1.1% 각각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전문소매점, 백화점 등에서 줄어 1.3% 감소했다. 건설수주는 건축 및 토목부분이 모두 늘어 41.1% 증가했고 무역수출은 섬유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29일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공사가 진행중이다. /뉴스스

품, 기타기계·장비 등에서 줄어 13.4% 하락했다.

무역 수입은 화학물질, 화학제품, 1차금속 등에서 줄어 5.1% 감소했고 소비자물가는 식료품, 비주류음료, 기타 상품, 서비스 등에서 올라 0.2% 상승했다.

취업자 수는 120만명으로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에서 늘었지만 광제조업, 도소매·음식숙박업 등에서 줄어 전년동분기대비 2만7500명 감소했다.

실업자 수는 4만4000명으로 30~59세에서 늘었지만 15~29세, 60세 이상

에서 줄어 전년동분기대비 12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인구는 전입 인구보다 전출 인구가 많아 709명이 순유출했고 연령대별은 60대, 구·군별로는 달서구에서 순유출이 가장 많았다.

경북도는 전년동분기대비 소매판매, 건설수주, 소비자물가, 실업자 수는 증가로 전환했다. 서비스업생산, 수입, 취업자 수는 감소로 전환, 광공업생산, 수출은 감소세 지속, 인구는 순유출이 계속된 것으로 집계됐다.

광공업생산은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전기장비 등에서

줄어 3.6%, 서비스업 생산도 운수·창고업, 숙박·음식점업 등에서 줄어 3.3% 각각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승용차, 연료소매점, 슈퍼마켓, 잡화점, 편의점 등에서 늘어 0.6% 증가했다. 건설수주는 건축 및 토목부분이 모두 늘어 162% 증가했고, 무역수출은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1차금속 등에서 줄어 4.2% 감소했다.

무역 수입 1차금속,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등에서 줄어 13.9% 감소했고 소비자물가는 식료품, 비주류음료, 의류·신발 등에서 올라 0.1% 상승했다.

취업자 수는 144만1000명으로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농림어업 등에서 고용은 늘었으나, 도소매·음식숙박업, 광제조업 등에서 고용이 줄어 전년동분기대비 6700명 감소했다.

실업자 수는 5만2000명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늘어 전년동분기대비 76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인구는 전입 인구보다 전출 인구가 많아 4602명이 순유출했고 연령대별은 20대, 시·군별로는 구미, 경산, 포항 순으로 순유출이 가장 많았다.

대구=문봉현 기자 newsmun@metroseoul.co.kr



권지현 덴트위스트대표가 군청을 방문해 치약 기부했다. /예천군.

덴트위스트 권지현 대표 예천군에 유아용치약 기부

예천군은 올바른 구강문화를 선도하는 기업 덴트위스트(DENTWIST) 권지현 대표가 군청을 방문하고 관내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써달라며 유아용 치약 1300개를 기부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기부 받은 치약을 드림스타트 대상 64가구, 지역아동센터 6개소, 예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전달해 건강하게 치아를 관리하고 꼼꼼한 양치질로 개인위생까지 챙겨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예방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북)예천=문봉현 기자 newsmun@



영양군 새마을회 알뜰도서교환시장 모습.

새마을문고 영양군지부 알뜰도서교환시장 운영

새마을문고영양군지부는 오는 20일까지 새마을회관 민화방도서관에서 새마을알뜰도서교환시장을 운영한다.

신간도서 200여권을 비롯한 도서 3000여권을 비치해 놓고 가정에서 다 읽고 난 책(오염 및 훼손된 책, 잡지, 그림책전집, 사전, 만화책, 워크북 등은 제외)을 1인당 2권 이내로 교환할 수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근검절약 및 건전한 독서문화 정착을 위해 애쓰는 새마을회에 감사드리며 지역에 건전한 독서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북)영양=김태우 기자 ktu3987@

알레르기 저감 '오프리 밀' 영광군, 세계 첫 재배 나서

50ha 규모 국비 시범사업 실시

보리산업 특구로 유명한 전남 영광군이 세계 최초로 알러지 저감 효과가 있는 '오프리 밀' 재배에 나서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영광군은 올해 국비 시범사업으로 50ha 면적에 오프리 밀 재배단지를 처음으로 조성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지만 내년에 원곡 200t을 처음으로 수확한 이후부터는 재배면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오프리 밀은 농촌진흥청이 육종한 신종 품종 밀로 국내 특허에 이어 미국·유럽에서 국제 특허 등록을 받았다.

주요 특성으로는 밀 알러지원 결손 성분인 '오메가-5 글리시딘'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밀가루 음식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김두호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장이 인공 교배를 통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제거된 밀 '오프리'를 개발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스스

영광군은 시범 재배에 앞서 지난 16일 군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 농협, 가공업체, 농업인학습단체, 청년농업인, 관련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 시식·평가회를 가졌다.

/(전남)영광=은하수 기자 ehs1203@

안동시 '안심식당' 92곳으로 확대운영

코로나19 예방 등 식문화 개선

안동시는 코로나19를 예방하고 건강한 식문화를 만들어가는 '안심식당'을 24개소에서 92개소로 확대·운영한다.

'안심식당'은 코로나19 감염의 우려를 줄이고 건강하고 위생적인 식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사업으로, 3대 식문화 개선 요건을 충족하는 식당을 안심식당으로 지정하여 말그대로 안심할 수 있는 음식점을 확대 보급하고자 마련됐다.

3대 식문화 개선과제로는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 ▲위생적인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이며,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영업소는 3대과제를 철저히 준수하여 식문화 개선을 이행하여야 한다.

지정된 안심식당에는 표지판을 부착하여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외식을 즐길 수 있도록 소비심리 회복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안동=문봉현 기자 newsmun@



한국 가사문학대상 수상자들.

이형남 '나비날다' 한국 가사문학대상

전남 담양군, 공모전 184편 심사

전남 담양군이 주최한 제7회 한국가사문학대상 공모전에서 이형남 씨의 '나비날다'가 대상을 받았다.

17일 담양군에 따르면 공모전에 응모한 총 184편을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대상을 받은 '나비날다'는 중국의 고대 사상이 장자의 우화 호접

지몽의 내용을 바탕으로 늦가을의 나목(裸木)을 접목해 새로운 시적 상상력을 담아낸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우수상에는 김경옥 씨의 '12월에 쓰는 편지'가, 장려상에는 김용복 씨의 '굴비'와 고정선 씨의 '신안산, 700년의 꿈 이야기'가 각각 뽑혔다.

/(전남)담양=김태수 기자 ts7080@

"여수사랑상품권 쉽게 구입·사용하세요"

여수시, 42개 은행서 상품권 업무

여수사랑상품권의 구입·사용·환전이 더욱 쉽고 편리해진다.

전남 여수시는 여수사랑상품권의 판매에서부터 가맹점 회수대금 지급까지 시가 수행하던 상품권 전반에 대한 업무를 16일부터 NH농협은행 여수시지부, 지역농협, 광주은행여수지점, MG새마을금고, 잠수기수협

등 42개 지점에서 대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물론 관광객 누구나 평소에 상품권 액면가의 6% 및 명절 등 특별기간에는 10%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가맹점 역시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상품권 회수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남)여수=김용학 기자 jjacecom@

정읍 동진강 야생조류서 AI 바이러스 '음성' 확인

전북도는 최근 정읍시 신태인읍 동진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검사결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음성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음성 확인에 따라 해당 지역에 설정됐던 방역대는 해제됐지만,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계속 검출되고 있다.

이와함께 전북도내 가금농가에서는 ▲출입 인원과 차량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 ▲농가 진출입로와 축사 주변에 충분한 생석회 도포 ▲매일 축사 내·외부 소독 ▲축사별 장화 갈아신기와 ▲축사 출입전 소독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북)정읍=강성대 기자 ksd1008@